

엔고하에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아세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일본기업의 국내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해외생산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해외로 이전이 예상되는 제품은 지금까지 국내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주력 양산품이 중심이 되며, 연구개발, 설계부문의 이전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기술집약형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자본참여 등 새로운 형태의 한일기업 교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차원에서 한일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둔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아세안의 생산확대 과정에서 한국

산 자본재, 소재 등에 대한 수요확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부응하는 산업, 수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제도, 생산요소의 원활한 조달, 인프라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업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각 지방과의 협력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일본진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유도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3년 이후 급등하고 있는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였던 일본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중국, 아세안 등 후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의 엔고하에서 중국, 아세안에 치중되고 있는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및 이에 따른 생산이전 실태를 살펴보

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제시를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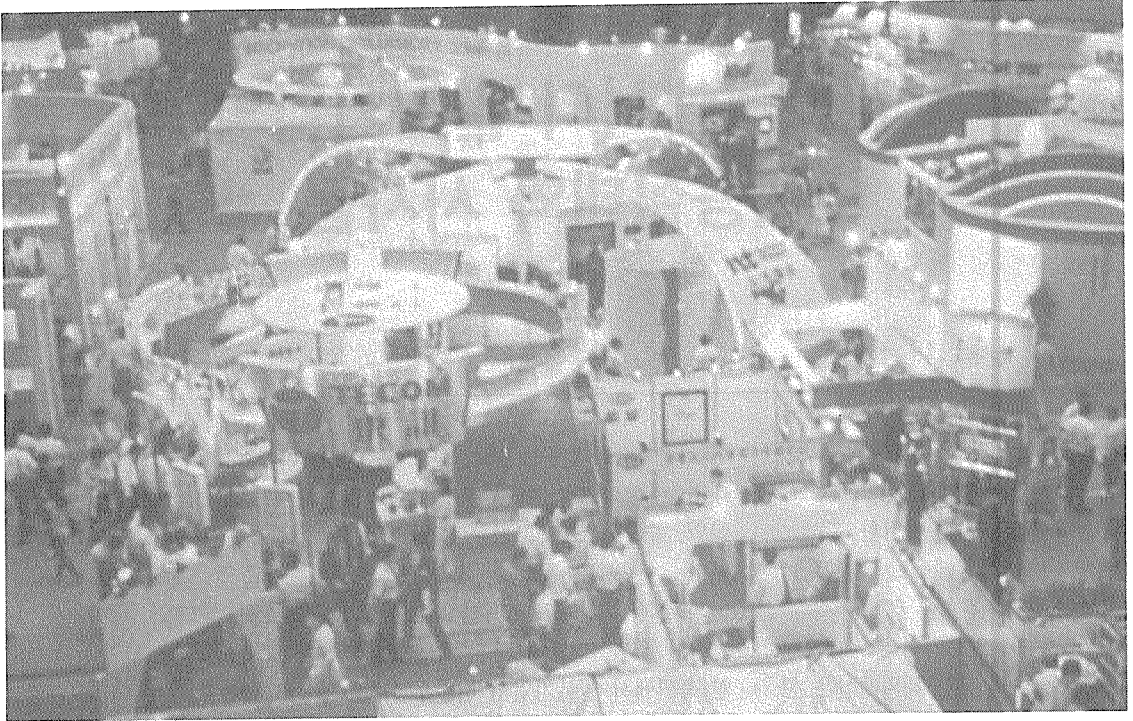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실태와 전망

엔화가치가 '93년 이후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9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던 일본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지역으로는 여타 지역에 비해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세안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배경은 현지생산을 통해 엔고로 인한 생산코스트의 상승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아시아 시장 진출, 일본으로의 역수입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투자 도입국의 산업기반

주) 본고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천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이 특히 아세안지역의 경우 '80년 대말 이후 계속된 일본기업의 이 지역 진출 등으로 크게 정비되었다는 점도 최근 이들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주요배경이 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아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는 중장기적으로도 아세안, 중국이 투자지역으로 가장 유력시 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화학, 전기, 식료품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투자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생산이전 실태

한편, 이와 같은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일본기업의 국

내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해외생산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외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해외생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비중은 기계분야의 경우 '92년의 40%에서 '94년 44%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시아지역에서의 현지생산이 추진되고 있는 제품의 중심은 지금까지 일본 국내생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력양산품이 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격, 고기능 상품의 이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생산과 관련된 기능 면에서는 생산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연

구개발, 설계부문의 해외이전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기업의 대한민국 직접투자와 전망

반면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는 최근 절대규모 면에서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중·아세안 투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기업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제조거점수, 국별 현지생산액 등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규로 한국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한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여 기존 생산거점의 확장에 필요한 투자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 시장에 대해 중국, 아세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80년대 후반 이후 일본기업의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로 이들 지역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일본기업의 이들 지역에 대한 생산이전이 다시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한·일 경제교류의 새로운 현상

한편, 지금까지의 한·일 기업간 교류는 일본기업이 앞선 자본력과 기술력을 배경으로 이를 한국기업에 이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기업간에 신제품의 공동개발 등과 같은 대등한 차원에서의 제휴관계 수립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제3국 시장에서의 공동 생산, 생산협력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삼성, 포항 제철 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일본 내에 기술관련 연구소 등과 같은 연구개발부문의 설립 등을 통해 일본에 진출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은 일본산업계의 구조조정 진전과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대일투자유치 정책의 구체화, 한국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본격적인 일본시장 진출 필요성 증대 등이 맞물려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차원에서 한·일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즉 엔고 등에 따른 일본기업의 해외진출로 일본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문제에 직접 직면하고 있는 지방차원에서 인접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가장 근접해 있는 큐우슈 등은 한국기업의 큐우슈 유치 등을 포함한 기업간 교류, 협력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 토야마, 니카타 등 동해 연안 지역은 한국의 수도권, 부산 등을 중심 항만 혹은 공항으로 하여 지역발전, 일본내 입지강화를 모색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대응방안

일본기업의 직접투자가 중국, 아세안에 치중되고 있는 반면, 한·일기업간에 새로운 형태의 교류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은 다음과 같은 면에 중점을 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에 따른 여타 아시아 국가의 생산확대 과정에서 자본재, 소재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일정한 품질수준을 갖춘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산업, 수출구조를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제도 뿐만 아니라, 필요부품 등의 원자재 및 인력의 조달, 금융, 교통, 통신과 같은 인프라 등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기술이전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기업의 대일 기술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각 지방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